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2.6.28

미 증시, 위험자산 선호심리 확대 불구 차익 매물 출회로 하락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견고한 경제지표를 통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자 상승 출발했으나,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전환하는 등 뚜렷한 방향성 없이 보합권 등락을 보임. 이 가운데 최근 낙폭이 컸던 에너지 업종의 강세가 뚜렷한 가운데 소프트웨어, 일부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는 차별화가 진행. 대체로 시장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 속 잠시 쉬어가는 양상을 보이며 마감(다우 -0.20%, 나스닥 -0.72%, S&P500 -0.30%, 러셀2000 +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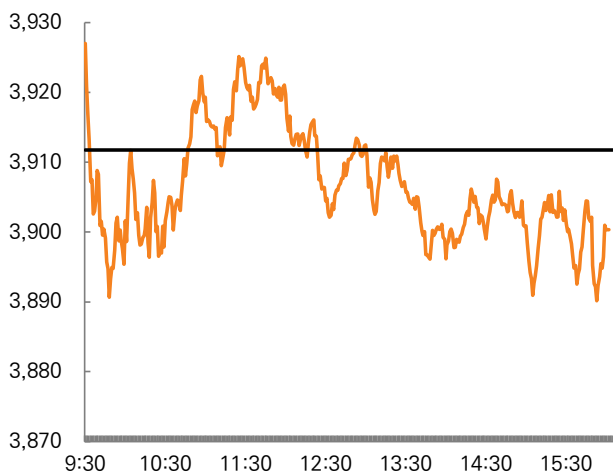
특이 종목

- 아마존(-2.78%)은 7월에 있을 프라임데이 매출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자 하락. 특히 리 오프닝으로 온라인 매출 감소 가능성이 부각된 점도 영향. 애플(-3.55%)와 이베이(-2.82%) 등 전자 상거래 업종도 동반 하락. 특히 애플은 니드햄이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이유로 매수에서 보류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점도 영향. 테슬라(-0.32%)와 니오(-4.69%)에 대해 미즈호에서 중국 공장 폐쇄로 인한 인도량 축소를 이유로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으나 상승 여력을 감안 매수 의견을 유지하자 테슬라는 장 초반 상승했으나 니오는 하락. 테슬라는 만회할 수 있는 공장이 있으나 니오는 중국 시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니오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켰기 때문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보합, MSCI 신흥 지수 ETF는 0.12%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86.25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14% 하락. KOSPI는 약보합 출발 예상
- 미 증시가 차익 실현 욕구가 부각되며 하락했으나, '경기 침체' 이슈가 완화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달러와 엔화약세와 국제 금리가 상승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졌기 때문. 이는 지난 주 한국 증시의 하락 요인 중 하나였기에 전반적인 투자심리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 특히 달러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약보합권 출발이 예상되나 전일에 이어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401.92	+1.49	상해종합	3,379.19	+0.88
KOSDAQ	770.60	+2.71	홍콩항셍	22,229.52	+2.35
DOW	31,438.26	-0.20	베트남	1,202.82	+1.46
NASDAQ	11,524.55	-0.72	유로스톡스 50	3,538.88	+0.16
S&P 500	3,900.11	-0.30	영국	7,258.32	+0.69
캐나다	19,258.32	+1.03	독일	13,186.07	+0.52
일본	26,871.27	+1.43	프랑스	6,047.31	-0.43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경기 침체 우려 완화와 차익 실현 욕구

지난 4월 초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 후 시장 참여자들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이후 6월 17일까지 나스닥이 24%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특히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1.5%를 기록했기에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기술적인 경기침체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가중

그렇지만, 파월 연준의장을 비롯해 앨런 재무장관, 볼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등 정책 입안자들은 경기침체는 아니라며 관련 우려를 완화시키는 노력을 해왔음. 그런 가운데 애들란타 연은이 GDPNow를 통해 2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제로 성장에서 0.3% 성장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소식은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 이 소식에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폭을 확대했으며, 달러와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등 위험 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짐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지난 주 나스닥이 7% 넘게 급등한 여파로 매물이 출회되며 약세를 보이는 경향. 특히 아마존(-2.78%)이 프라임데이(7/12~13일)를 앞두고 매출 증가가 일반적 기대치 65% 성장보다 훨씬 낮은 전년 대비 17%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되자 하락이 뚜렷. 더 나아가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확대된 점도 기술주 특히 소프트웨어 업종 중심 매물 출회를 자극. 최근 낙폭이 컸던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등 업종 차별화가 진행. 대체로 시장은 최근 하락의 원인인 ‘경기 침체’ 이슈가 완화된 가운데 지난 주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가 특징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온라인 판매 업종, 소프트웨어 업종 부진

아마존(-2.78%)은 7월에 있을 프라임데이 매출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자 하락. 특히 리 오프닝으로 온라인 매출 감소 가능성이 부각된 점도 영향. 애플(-3.55%)와 이베이(-2.82%) 등 전자 상거래 업종도 동반 하락. 특히 애플은 니드햄이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이유로 매수에서 보류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점도 영향. 테슬라(-0.32%)와 니오(-4.69%)에 대해 미즈호에서 중국 공장 폐쇄로 인한 인도량 축소를 이유로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으나 상승 여력을 감안 매수 의견을 유지. 이에 힘입어 테슬라는 장 초반 강한 모습을 보였으나, 니오는 낙폭을 확대. 테슬라는 상하이 이외에도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공장이 있으나 니오는 중국 시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미즈호의 목표주가 하향의 근본적인 이유 즉 상하이 봉쇄가 니오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켰기 때문

로빈후드(+14.00%)는 골드만삭스가 매도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장 후반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의 인수 검토 소식 이후 상승 확대. 반면 코인베이스(-10.76%)는 현금 소진에 대한 우려로 중립에서 매도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자 급락. 엑스모빌(+2.45%), 셰브론(+1.93%) 등 에너지 업종은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에 더해 G7 정상회담을 통해 대 러시아 추가 제재 가능성이 부각되며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자 상승. 모자이크(+4.57%), CF(+4.20%) 등 비료 업종도 동반 상승. 퀄컴(+1.66%)은 연방 대법원이 특허 관련 애플의 항소를 기각했다는 소식에 강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18% 하락에 그침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4.57	대형 가치주 ETF (IVE)	+0.04
에너지섹터 ETF (OIH)	+3.81	중형 가치주 ETF (IWS)	+0.09
소매업체 ETF (XLY)	-1.05	소형 가치주 ETF (IWN)	+0.44
온라인소매 ETF (EBIZ)	-1.38	대형 성장주 ETF (VUG)	-1.06
금융섹터 ETF (XLF)	-0.34	중형 성장주 ETF (IWP)	-0.29
기술섹터 ETF (XLK)	-0.67	소형 성장주 ETF (IWO)	+0.36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93	배당주 ETF (DVY)	+0.66
클라우드 ETF (CLOU)	-1.60	신흥국 고배당 ETF (DEM)	+0.86
미국 리츠 ETF (VNQ)	-0.15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0.20
주택건설업체 ETF (XHB)	+0.14	미국 국채 ETF (IEF)	-0.56
바이오섹터 ETF (IBB)	+0.07	하이일드 ETF (JNK)	-0.47
헬스케어 ETF (XLV)	+0.37	물가연동채 ETF (TIP)	-0.72
곡물 ETF (DBA)	-1.21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92
반도체 ETF (SMH)	-0.33	모멘텀 ETF (MTUM)	+0.74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에너지	562.24	+2.78	+1.19	-15.96
유틸리티	353.69	+0.81	+8.11	-7.16
헬스케어	1,512.60	+0.39	+8.57	-3.00
필수소비재	756.91	-0.22	+6.34	-2.69
산업재	749.55	-0.25	+3.97	-6.90
부동산	261.28	-0.26	+7.43	-6.75
금융	536.37	-0.44	+4.68	-9.16
IT	2,317.98	-0.63	+6.60	-6.16
소재	477.47	-0.81	+1.85	-12.84
통신	194.14	-1.05	+5.88	-3.29

경기소비재	1,140.53	-1.08	+7.07	-5.0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위험자산 선호심리 속 강세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보합, MSCI 신흥 지수 ETF는 0.12%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86.25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14% 하락. KOSPI는 약보합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볼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시장이 과민한 반응을 보였다고 언급한 데 힘입어 상승. 특히 달러/원 환율이 11원 넘게 하락하는 등 원화 강세에 힘입어 외국인의 현물 매수세가 유입되는 등 수급적인 부분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KOSPI는 1.49% 상승하며 2,400pt를 상회하며 마감했으며, KOSDAQ도 2.71% 상승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차익실현 욕구가 부각되며 하락했으나, ‘경기 침체’ 이슈가 완화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달러와 엔화가 약세를 보였고, 국제 금리가 상승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졌기 때문. 이는 지난 주 한국 증시의 하락 요인 중 하나였기에 전반적인 투자심리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

한편, 미 증시의 특징 중 하나인 지난 주 부진했던 에너지 업종과 반도체 업종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인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는 지난 주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한국 증시의 강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특히 달러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약보합권 출발이 예상되나 전일에 이어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애틀란타 연은, 미국 2분기 GDP성장률 0.3% 전망

애틀란타 연은은 GDPNow를 통해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 지난 16일 발표된 0.0% 성장에서 0.3% 성장으로 상향 조정

미국 5월 잠정 주택판매지수는 지난달 발표(mom -4.0%)나 예상(mom -2.5%)을 상회한 전월 대비 0.7% 증가로 발표. 전체 지수는 99.2에서 99.9로 개선

5월 미국 내구재 주문은 지난달 발표(mom +0.4%)보다 개선된 전월 대비 0.7% 증가. 운송을 제외한 수치도 전월 대비 0.7% 증가해 예상을 크게 상회

6월 앨리스 연은 제조업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7.3보다 크게 위축된 -17.7로 발표. 특히 생산지수가 18.8에서 2.3으로 위축된 가운데 신규수주가 3.2에서 -7.3으로 발표돼 2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FICC, 위험자산 선호심리 확대

국제유가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심리가 확산된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자 상승. 여기에 G7 정상회담에서 대 러시아 제재 발표 및 리비아 국영 석유 회사의 생산 중단 소식 등도 국제유가 상승 요인 중 하나. 한편, G7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이 조치가 통과될 경우 러시아산 원유가 공식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될 지 여부는 좀더 지켜 봐야 할 것으로 전망

달러화는 지난 주 원자재 가격 하락이 공급 증가로 인한 결과라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완화되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 특히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된 점도 달러 약세 요인. 엔화도 안전자산 선호심리 약화로 달러 대비 약세

국채금리는 미국 경제지표가 견고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애틀란타 연은이 GDPNow를 통해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을 0.3%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자 상승폭 확대. 더 나아가 5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인 2.43배를 하회한 2.28배, 간접입찰도 62.0% 보다 둔화된 56.5%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가 감소한 점도 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

금은 G7의 러시아산 금 제재 소식을 소화하며 안전자산 선호심리 완화 속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지난 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곡물은 밀이 북미 지역 수확량 확대 전망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해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옥수수도 파종 면적 상향 조정 가능성이 부각된 가운데 주요 작황지에 비가 내릴 것이라는 전망 속 하락. 대두는 미국 파종 면적 감소 전망에 상승.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30%, 철근은 0.66% 상승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109.57	+1.97	+1.62	Dollar Index	103.966	-0.21	-0.70
브렌트유	115.09	+1.93	+1.03	EUR/USD	1.0583	+0.28	+0.68
천연가스	6.50	+3.25	-7.52	USD/JPY	135.47	+0.18	+0.30
금	1,824.80	-0.32	-0.87	GBP/USD	1.2267	-0.01	+0.11
은	21.19	+0.10	-2.31	USD/CHF	0.9563	-0.21	-1.17
알루미늄	2,495.50	+1.61	-1.25	AUD/USD	0.6922	-0.33	-0.42
전기동	8,417.50	+0.44	-6.24	USD/CAD	1.2878	-0.10	-0.79
아연	3,318.00	-0.96	-5.67	USD/RUB	54.3678	+1.66	-2.01
옥수수	653.00	-3.19	-10.74	USD/BRL	5.2345	-0.16	+0.84
밀	917.50	-1.90	-12.23	USD/CNH	6.6926	+0.16	+0.05
대두	1,432.75	+0.70	-6.72	USD/KRW	1,286.50	-0.90	-0.46
커피	222.10	-0.52	-2.33	USD/KRW NDF1M	1,286.25	-0.20	-0.43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205	+7.53	-2.02	스페인	2.656	+10.20	-18.80
한국	3.712	+8.70	-7.30	포르투갈	2.634	+11.20	-17.20
일본	0.245	+1.50	+0.50	그리스	3.856	+7.60	-16.50
독일	1.547	+10.50	-20.20	이탈리아	3.369	+5.50	-18.4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